

부산문화에 한류 더해 랜선축제... 8일 K-팝 콘서트 개막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메이드인부산 등 5개 프로그램 마련
V라이브 통해 230개국 스트리밍
슈퍼주니어 등 한류스타 총출동
박형준 시장 "한류팬에 희망 전달"

부산시는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발 한류 문화 종합축제인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을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페스티벌을 위해 BOF 최초로 한류와 부산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랜선 종합축제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K-팝 콘서트 ▲파크 콘서트 ▲BOF 랜드 ▲B-아트 ▲메이드인부산 등 총 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홈루텐스족이 늘면서 랜선에서 다양한 문화를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홈페이지 화면 캡처

즐기고 있어 BOF의 주요 타겟층인 MZ세대에게 뜨거운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팝, 파크 콘서트는 V라이브를 통해 230개국에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유튜브·라인·올케이팝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지친 전세계 한류팬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올해 BOF는 최고의 출연진과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사전 온라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BOF 랜드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박준형, 돈스파이크, 초아 등 셀럽과 협업을 통한 BOF만의 오리지널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실시간 스트

리밍으로 만날 수 있다.

또, 부산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나의 노랑말들 ▲오 느린윤혜린 ▲호재이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레이블 공연팀의 무대도 랜선으로 즐길 수 있다.

올해 BOF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는 8일에 막을 올린다. 슈퍼주니어, 강다니엘, 마마무, NC T드림, 펜타곤, 러블리즈 등 한류 대세가 총출동한다.

특히 위아이가 부산 주요관광지인 마린시티, 광안리, 해운대 등을 직접 다니며 생생한 여행의 현장감과 설렘을 전한다. 깜짝 게스트로 박형준 부산 시장이 핫플레이스를 직접 소개하는 특별한 랜선 여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인 파크 콘서트는 9일에 김범수, 거미, B1A4, 폴킴, 제시 등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아트테이너 김중재·섭섭 작가와 부

산소재 대학생들이 기획한 공공아트(벽화) 프로젝트 사업인 B-아트는 금정구 금사동 예술지구P와 부곡동 늘푸른아파트 입구에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옷을 입힌다.

메이드인 부산에서는 부산지역 우수 문화 공연 작품인 '원으로 만드는 아시아'를 퍼포먼스 시네마로 새롭게 만나 볼 수 있다. 오륙도 선착장 등 부산 야간 명소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을 '설레는 하룻밤의 꿈'이라는 이야기에 담아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랜선으로 돌아온 BOF가 우리 국민과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지만 익숙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광주북구, 5월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

지역 특화 콘텐츠 보급·확산
브이로그 등 영상 다양성 UP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을 캔버스 삼아 화려하게 펼쳐지는 빛의 향연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제작된 미디어파사드는 메인작품 '빛의 나무(진시영 작)'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류의 치유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광주북구는 오는 9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이후에도 5월 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지속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지원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야발쇼'를 특별 상영했다.



광주북구, 미디어파사드 공연.

5월 셋째 주부터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정록 초대전 그곳, 그 숲', '리암 길릭: 워크 라이프 이팩트' 등의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광주'를 기념하기 위해 북구청 직원이 제작한 브이로그 영상 등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예술성에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을 더

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향후 문화산업기관과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답게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화순군, 귀농·귀촌박람회 우수홍보관상

온·오프 상담, 특산물 홍보

화순군이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에게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홍보관 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업이 공동 주최했다. 박람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돼 홍보 효과를 높였다.

군은 홍보관을 현장에 마련해 오프라인 상담과 특산물 홍보를 진행했고, 온라인에 전시관을 따로 구성해 지역 특성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귀농 정책 상담 할

등을 전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귀농 귀촌인 농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는 초기 정착이 어려운 귀농인에게 용자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선도 농가와 1:1 결연을 맺어 연수하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임시 거주 시설인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다.

도농 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성공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에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5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 5명(14.7%)은 화순군에 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화순(전남)=강성대 기자

나주시, 찾아가는 로컬푸드 체험투어 행사

복지시설 아동에 체험활동 기회제공

나주시는 99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투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와 먹거리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복지시설 아동의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은 이날 이화영아원, 금성원, 백민원 등 복지시설 아동들과 만나 나주산 딸기 생크림케이크 만들기

를 비롯해 다양한 조리체험을 실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계산원, 성산원, 수산원,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입소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컬푸드 체험투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복지시설 아동들의 체험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어 이번 체험 투어를 계획하게 됐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로컬푸드와 더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상주시-경북대 지역사회 연계 상생협력

경북 상주시는 경북대학교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영석 시장과 홍원화 총장은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구개발(R&D)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관학 협력 사업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강 시장과 홍 총장은 최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상생협력과 특성화 방안 마련에 공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상주시와 경북대의 상생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마스크·농산물 등 기부품 배부 계획

함평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계각층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등 훈훈함을 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주)SJ&TA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1천 200만 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10만 장을 기탁했다.

같은 날 함평농협군지부(지부장 김천국)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50박스를 기부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주)금호(대표 박청)와(주)195F&B(대표 김법안)는 300만 원 상당의 꾸기와 우리밀 빵을 함평군에 기탁했다.

군은 기탁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이상의 함평군수(왼쪽 세 번째)와 (주)SJ&TA 유학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마스크 기탁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저소득 출산가정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가정의 달에 이웃들을 잊지 않고 온기 가득하고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관내 소외된 이웃 및 출산가정, 아동들에게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함평(전남)=강성대 기자